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소비자, 생산자 잉여 및 유통이익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희량**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6~19세기 후반까지의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향료무역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의 양상을 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한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유통이익 등 후생변수의 측정을 통해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통해 향료무역 초기에는 경제주체 간 대등한 경제적 잉여의 배분이 이루어졌던 반면 향료시장이 유럽 상인에 의해 독점되면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고 경제적 잉여(후생)는 동남아시아(향료 생산자)로부터 유럽(향료 소비자, 향료 상인)으로 이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료무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서도 경제적 왜곡의 심화는 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경제학적 보편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향료무역, 향료 생산자, 향료 소비자, 유럽 상인, 경제적 후생, 경제적 왜곡

259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소비자, 생산자 잉여 및 유통이익의 변화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간접연구경비 2012년도 우수논문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Tel: 051-629-5767, Email: heeryang@pknu.ac.kr

I. 서론

16세기 이후 40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은¹⁾ 단순한 상품 교역의 차원을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이 서구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흐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 유럽 동남아시아 간 교역은 16세기 이후, 이전의 중국, 인도 및 아랍 상인 등을 통한 간접 교역에서 벗어나 향료무역으로 대표되는 직접 교역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는 향료무역을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던 유럽 상인들의 동남아시아로의 향로 개척 및 교역 참여, 그리고 중상주의적 방식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유럽 열강들의 적극적 지원 및 개입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유럽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과정은 향료 및 향료 생산지에 대한 쟁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했으며 이들의 향료에 대한 집착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교역의 상식과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³⁾ 국가의 사활을 걸다시피 한 유럽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결코 순탄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유럽 열강들은 단순한 교역 참가자로서 향료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향료시장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1) 향료(香料, spice)는 정향(clove), 육두구(nutmeg), 후추(black pepper) 등과 같이 주로 요리에 첨가하여 맛을 더해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품을 통칭한다. 향료는 이외에도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및 의약품 등으로도 활용되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어온 유럽인들에게는 이동, 월동 등을 위한 고기와 생선의 장기 보존을 위해 향료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향료의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 상류층 및 부유층에서만 소비가 가능했다. 향료의 가격은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쌌으며 이로 인해 상인 더 나아가 국가권력까지도 향료의 확보를 위해 향료생산지로의 직접적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향료는 유럽 제국의 동방으로의 진출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길인성, 1995, 5; 주경철, 2008, 513-514).

2) 이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상업자본주의를 시작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세계적 확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강성호 2006; 고원 2010; 김근수 2001; 이용일 2008 등).

3)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저서 중 하나로는 Giles Milton (2000)의 *Nathaniel's Nutmeg: or the True and Incredible Adventures of the Spice Trader Who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를 들 수 있다.

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적 방법까지도 광범위하게 동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동남아시아 토착세력들의 대응 및 저항과 맞물려져 두 지역, 두 세력 간의 공존, 대립 및 충돌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남기게 되었다.⁴⁾

유럽 동남아시아 간 교역의 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적 편린들은 현재까지도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향료무역은 특히 경제사학(經濟史學, economic history) 분야에서 흥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경제사학의 향료무역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거시경제적(macroeconomic) 차원의 접근으로서 향료무역을 통해서 이전까지 지역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던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하나의 경제권(시장)으로 추동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향료무역과 교역의 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이 어떠한 인과관계와 상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실증적, 계량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⁵⁾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시경제적(microeconomic) 차원의 접근으로서 향료의 가격, 교역량 등의 측정과 이에 따른 향료시장 및 향료무역의 구조 및 변화에 대한 연구, 향료무역의 주요 참가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석 및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⁶⁾ 향료무역의 주된 경제적 주체는 우선 유럽

4) 유럽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대표적 동남아시아 역사학자들의 연구(Hall, 1999, 2004; Heidhues, 2000; Kathirithamby-Wells, 1993; Lieberman, 1993, 1995; Reid, 1990, 1992, 1993a, 1993b)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길인성, 1995; 김동엽, 2011; 신윤길, 1998; 주경철, 2008; 최병욱, 2006; Kim, 201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5) 관련 연구로는 향료무역 이후 국제적 교역의 활성화 및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Bentley, 1996; Frank, 1998; Wallerstein, 1974 등)와 향료무역 이후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간 상대가격의 여전히 격차 등 세계화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연구(O'Rourke & Williamson, 2002, 2009)로 대별된다.

6) 대표적 연구로는 유럽 동남아시아 간 교역의 대표적 상품인 정향, 후추, 설탕, 커피에 대한 1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상품의 가격 및 교역량 등을 추적한 연구(Bulbeck, 1998)를

의 향료 소비자(수요자), 동남아시아의 향료 생산자(공급자), 그리고 이 둘의 경제적 욕구를 연결해 주는 유럽 상인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향료무역에 대한 다수의 역사 사료 및 연구들을 통해 위의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 및 그 이해관계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경제적 후생이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실증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경제사학 분야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향료무역을 통한 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 변화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기존에 축적되어 온 향료무역에 대한 미시경제적 차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료의 가격 및 교역량의 측정 및 변화를 통해 유럽의 향료 소비자, 동남아시아의 향료 생산자, 유럽 상인의 3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실증적 분석 결과가 정황적 근거들을 기초로 제기되어 온 향료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알아보고자 한다.

다행히 동남아시아 현지에서의 향료 매입가격, 수량, 유럽 수요지에서의 판매가격, 수량 및 유럽 상인들의 유통이익(markup)에 대한 자료들은 당시의 향료무역 종사자, 유럽 역사가 등이 남겨 놓은 방대한 사료 및 문헌, 그리고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다.⁷⁾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들 수 있는데 본 논문도 동 저서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료무역이 동남아시아 경제의 변화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길인성, 1995; 김동엽 2011; Kim, 2012).

7) 경제사학은 역사적 전개에 따른 경제구조, 생산양식 등의 경제적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경제학과 역사학이 조우하는 학문 분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의 변화 과정에는 생산, 소비, 분배의 경제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방식 및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주제도 포함한다. 또한 경제사학은 역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접근 그리고 당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연구주제로 설정된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이론(모델)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른 인문,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도 학제적인 연구를 위해 활용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사학은 계량분석을 위한 통계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른 경

시대적 상황에 따른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 및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경제사학의 중요한 주제인 향료무역에 대한 미시경제적 연구의 진전이라는 데에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입수에 있어 1차 사료의 해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1차 사료를 통해 작성된 기존 연구에 의존하고자 한다.⁸⁾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시대적 구분 및 그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실증분석의 결과가 앞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그 경제학적 의미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향료무역의 시기 구분 및 경제적 후생 및 변화에 대한 가설

1. 향료무역의 시기 구분 및 특징

본 논문은 16세기 이후 4세기에 걸쳐 전개된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시기를 향료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유럽 상인의 독점력의 정도에 따라 각

제학 분야에 비해 통계적 자료와 정치한 분석 기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 근거인 통계적 자료가 부재하다면 경제학적 의미의 연구로서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 자료가 전무하다시피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은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향료무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위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통계적 자료의 입수 및 해석이 가능한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8) Bulbeck 1998; O'Rourke & Williamson, 2002, 2009 등

각 제 1기(1500~1650년), 2기(1650~1780), 3기(1780~1890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 향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분석하여 소비자, 생산자, 상인의 경제적 후생 변화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설정된 가설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지표를 측정하고 그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제시된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정한 시기별로 향료 시장의 특성을 기술해 보면 제 1기는 향료 시장 및 무역의 자유경쟁기로 볼 수 있다.⁹⁾ 이 시기는 리드(Reid)가 제기한 소위 교역의 시대(Age of commerce, 1450~1680)와 대부분 일치하며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열강들이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에 중국, 인도, 아랍 상인 등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 시기 향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이후의 시기에 비해 경쟁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¹⁰⁾

향료무역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한 이후에도 적어도 1세기 이상은 유럽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길인성 1995; 김동엽 2011; Reid 1993a). 16세기 이후 비록 유럽 상인에 의해 말라카를

9) 경제학에서 '경쟁적(competitive)'이라는 용어는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특정 참가자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과 수량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0) 동남아시아는 적어도 17세기 초까지는 한편으로는 지역 내 제 세력들 간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활발한 무역,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페르시아 및 아랍 세계와의 긴밀한 무역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다. 그 무역 활동에는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 등 외래 아시아 상인들뿐만 아니라, 말레이 상인, 아체 상인, 자바 상인, 마두라 상인, 부기스 상인, 술루 상인 등 동남아시아 광범한 도서부 지역의 토착 상인들도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착 상인들은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의 국제적 상업 활동 무대에서 점차 퇴장하게 되고 대신 동남아시아의 주요 상업 활동과 국제무역은 대부분 외래 상인들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퇴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에서의 무역을 독점하려던 유럽인들의 경제적 탐욕과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력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Reid 1993a).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향료 유통망이 장악되었지만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당시 유럽 상인들은 향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아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 중 하나로서 향료수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향료시장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료시장의 신규 참여자인 유럽 상인의 대규모적인 향료에 대한 수요와 적극적인 시장 참여는 현지 향료가격 인상 및 생산증대 등을 통해 향료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를 가져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길인성 1995). 또한 이 지역으로의 새로운 향로 개척과 향료무역 확대에 따른 유럽에서의 향료 물량 증가는 유럽 향료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료무역을 담당했던 유럽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현지 매입가격과 유럽 판매가격의 차이를 통한 지대(유통이익)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의 확대와 수요증가는 현지 향료 생산자에게 생산 증대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향료 생산의 증대는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¹¹⁾ 물론 동 시기 후반부로 갈수록 향료시장에 대한 유럽 상인들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료시장의 경쟁적 요소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동 시기 향료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결정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이 일정부분 담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²⁾

11) 물론 이 시기는 향료공급의 불안정성과 충분한 수준의 공급의 제약 등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향료 상인들은 아직 항해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 경쟁국 간 갈등 및 경쟁의 심화,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에서의 경쟁적 참여 및 향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의 유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향, 육두구 등은 후추에 비해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이 지역으로의 유통망 확보의 여부에 따라 유통이익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12)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유럽 상인의 향료수요에 대한 독점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경쟁적

다음으로 제 2기의 경우 향료 시장 및 무역에 있어서 경쟁적 요소가 비교적 강하였던 제 1기와 비교하여 극명하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동 시기는 네덜란드로 대표되는 유럽 상인에 의한 향료시장의 독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완성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동 시기는 유럽 상인의 유통망 장악과 더불어 향료수요의 독점 및 향료 생산량에 대한 통제 등으로 인해 기존 향료시장의 경쟁적 요소들이 대부분 상실되고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¹³⁾ 이는 향료의 가격 및 생산량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수요 독점적 위치에 있었던 유럽 상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적 왜곡은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이 유럽 소비자의 소비자잉여 및 상인의 유통이익으로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 시기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은 극대화되는 반면 향료 생산자의 경제

향료시장의 구도는 점차 변화하게 된다. 유럽 상인의 수요 독점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협상력은 점차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상인들은 점차 항해의 안전이 담보되고 향료에 대한 경쟁적 수요 및 공급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의 유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생산자잉여는 향료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향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그 후생 및 가격의 증가 및 상승 속도는 감소할 수 있다.)

- 13) 이 시기 도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토착적인 상업 및 무역 세력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럽인은 네덜란드인들이었다. 향료무역의 독점을 추구한 네덜란드의 VOC(동인도회사)는 이미 17세기 초부터 향료제도의 섬들을 점령하고 그 향료 생산과 거래를 철저하게 통제 내지는 장악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VOC는 1656년까지 암본과 트리나테 등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항하는 모든 토착인 세력을 제압하고 정향을 암본에서만 재배하게 하는 등 완전한 독점을 달성했다. VOC는 1669년에는 마카사르의 핵심 항구인 솜바오푸를 점령하여 향료제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향료의 거래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다. 또 VOC는 1683년 후추의 주요 수출항이었던 자와 섬 서북부 연안의 반덴을 굴복시켜 후추 무역도 독점했다. 이처럼 반덴과 마카사르는 네덜란드인들에게 점령되고 그 상업 활동이 위축 내지는 종식됨으로써 그 후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중단되고 말았다. 17세기 말이 되면 도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왕족과 귀족들은 후추 무역으로 인한 위험과 시장의 불안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후추 생산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적 경제로 돌아가려고 했으며, 향료무역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에서 말레이반도 남부에서부터 칼리만탄, 인도네시아 군도, 그리고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토착 원주민들이 17세기 말 이후 국제적인 무역 시장에서 혹은 국내의 대규모 상업에서 활발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유럽인들과 특히 유럽인에 협조하는 화인 등의 외래 상인들에게 넘어갔다.

적 후생은 축소 또는 최소화되며 이로 인해 향료무역 참여자들 간에 특히 향료 생산자와 유럽 상인 간에 적지 않은 경제적 후생 구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유럽 상인은 유통망의 장악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유통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현지의 향료 생산량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등 향료시장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적 후생(유통이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특히 향료군도를 독점하게 된 네덜란드는 아시아 각지의 무역과 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재분배기업체(redistributive enterprise)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¹⁵⁾ 한편 동 시기 유럽의 향료 소비자들의 경우 유럽으로의 안정적인 향료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향료 가격 하락 및 물량증대로 인해 전기에 비해 경제적 후생 수준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동 시기는 유럽 상인의 수요독점, 특히 향료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은 극대화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럽 향료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은 향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 3기는 2기에 이어 유럽 상인의 유통망 장악, 수요 독점 및 현지 생산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향료 대체재의 보급과 향료, 특히 후추 생산지의 확대에 따라 이전 시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수요 독점 및 공급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동 시기의 후반기인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향료무역을 통한 유통이익은 급속하

14) 실제로 이는 유통이익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통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물리적, 폭력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정향, 육두구 등의 유통이익이 후추에 비해 수배가 차이가 나는 등 이 시기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O'Rourke & Williamson 2002).

15) 재분배기업체란 군사력의 이용과 지배를 통해 지배하의 상품(향료)을 일거에 수집하여 이것을 수요처에 재분배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Polanyi 1957, 11).

게 감소하고 향료 시장 및 무역의 기존구도 해체되게 된다. 향료 시장 및 무역의 축소 및 사양화는 향료 교역량의 절대적 규모 자체를 감소시켜 향료 가격의 인상 및 인하 등과는 별개로 향료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의 절대적 규모 자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 시기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은 여전히 유럽 상인들의 유통 및 생산 지배에 따른 판매 가격의 정체 또는 하락과 향료시장의 축소로 인한 생산량 자체의 감소로 인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럽의 향료 소비자들은 향료의 안정적 공급의 지속과 향료가격 하락 등 경제적 후생이 증가될 요소가 여전히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향료의 대체재 확산, 이에 따른 향료 자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향료시장을 통한 경제적 후생의 절대규모는 감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상인들은 여전히 유통망 장악과 생산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였지만 대체재의 보급과 향료 생산지의 확산으로 인해 그 독점적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왔던 유통 이익은 그 절대규모 면에서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⁶⁾

19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향료의 수요 및 공급 독점 구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향료무역을 통한 유통이익의 급격한 축소에 따라 향료무역은 쇠퇴하여 1890년대를 전후로 향료무역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더 이상 집계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20세기 이후 유럽 각국은 전통적인 향료무역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한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열강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직접적 식민통치를 본격화하였고 이후 동남아시아는 교역의 대상국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및 이윤

16) 심지어 정향, 육두구 등의 향신료 유통이익이 후추의 유통이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향료무역의 매력은 급격히 상실되었다(O'Rourke & Williamson 2002, 2009). 이에 따라 유럽 상인은 기존의 유럽 동남아시아 간 교역방식을 벗어나 아시아 각지의 시장으로의 배급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창출을 위한 자원의 공급처 및 상품의 판매처로서 그 성격이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2. 향료무역의 각 시기별 경제적 후생 및 변화에 대한 가설 설정

위에서 살펴본 향료무역의 각 시기별 특성을 바탕으로 시장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를 논의하면 먼저 향료무역 제 1기는 유럽 상인의 향료시장 참여 및 향료시장의 확대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 시기는 이후에 이어지는 유럽 상인에 의한 향료시장의 독점화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후생 특히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덜란드 상인의 향료시장에 대한 독점력과 영향력이 확립 되게 되는 165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경제적 후생 변화가 예상된다.

제 2기는 네덜란드가 여 타 유럽 열강들과의 향료 군도 쟁탈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향료시장의 독점자로 군림하게 되는 시기이다. 동 시기는 네덜란드 상인이 향료시장을 독점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을 대가로 소비자 잉여 및 유통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동 시기는 향료무역의 절정기임과 동시에 경제적 왜곡 및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생산자잉여는 제 1기에 비해 감소하여 최저에 이르고, 소비자잉여 및 유럽 상인의 유통이익은 최대 및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후생 및 변화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제 3기는 향료무역의 쇠퇴기로 네덜란드의 독점적 위치가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점차 향료의 대체제가 널리 보급되고 향료의 생산지가 확산됨에 따라 네덜란드가 향료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19세기 말 이후에는 향료 수요의 급감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 자체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동 시기 향

료시장 및 교역의 규모자체가 축소됨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 자체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 시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유통이익 모두가 절대적 규모에서조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1>은 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향료시장의 특성과 향료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에 대한 가설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1> 향료무역의 시기 별 특성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

시기	향료시장의 특성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			
	수요 독점정도	공급 통제정도	유럽 향료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	유럽 향료 상인의 경제적 후생	경제적 왜곡
제 1기 (1500-1650)	없거나 약함	없거나 약함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제 2기 (1650-1780)	강함	강함	최대	최저	최대	최대
제 3기 (1780-1890)	강함	약함	감소	최저	감소	감소

주) 감소 및 증가는 2기를 기준으로 1기와 3기의 변화를 나타냄. 예를 들어 1기에서 증가는 후생 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1기에 비해 2기가 큼을 의미함. 최저 및 최대는 동 시기 후생 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함.

III. 모형 설정

수요지와 공급지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거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접적 조우가 어려울 경우 상품교역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생산자의 판매욕구를 매개해주는 상인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업 활동을 통한 교역의 증대는 상품의 공급량 증가와 가격의 하락 등을 가져오고 시장의 활성화와 규모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인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 즉 유통이익의 획득을 통해 금전적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상인의 유통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요독점 더 나아가 공급에 대한 통제 등은 경쟁적 시장 형성을 저해하거나 시장외적 요소의 개입을 통해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왜곡은 결국 상품 공급의 감소 및 가격 상승을 유인하고 이는 다시 시장의 축소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져오며 이는 오히려 상인의 유통이익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료무역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 상인의 향료시장에 대한 독점력 증대가 위와 같은 일련의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 향료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보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와 같이 후생변화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의 실증적 검정을 위해서는 우선 향료시장의 참여자인 향료 소비자 및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산술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대리변수(proxy variable)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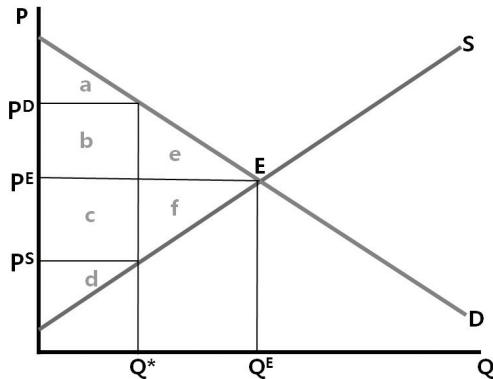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후생의 대리변수로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태분석 차원에서의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그리고 지대(rent)의 개념을 이용한다.¹⁷⁾ 유럽 향료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잉여로,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은 생산자잉여로,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은 총 유통이익(total margin)으로 환원하여 측정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

17)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지대의 측정을 위해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수량화를 전제로 한다.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는 각각 도출된 수요 및 공급 곡선을 활용해 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잉여는 균형가격 위와 수요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의 차이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잉여는 균형가격 아래 공급곡선 위 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대는 경제적 왜곡 등으로 인해 실제 가격 및 수량이 균형가격 및 수량에서 벗어날 경우 경제적 왜곡으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후생부분을 지칭한다.

해 얻을 수 있는 향료 가격과 수량 자료(변수)를 이용해 (논의의 편의 상) 일차 방정식 형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 잉여, 생산자잉여, 지대(유럽 상인의 총 유통이익)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¹⁸⁾

또한 구해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or supply)도 도출할 수 있다.¹⁹⁾ 가격탄력성의 측정 및 그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면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향료의 상품적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향료무역 3기의 경우 향료 대체재의 등장, 향료 재배지의 확산 등으로 향료가 사치재로서의 상품적 특성을 지속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경제학적 모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동 그래프는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수요와 공급모델로서 이 그래프를 통해 수요, 공급 곡선과 균형가격, 균형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지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수요 및 공급 곡선,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유통이익



18)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수요 및 공급 곡선,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가격탄력성 등의 현대경제학의 방법론이 모든 시대와 경제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제외한다.

19)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요량 및 공급량의 변화율로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위의 그래프에서 D와 S는 각각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단순한 일차 방정식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E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상품의 균형량(QE)과 균형가격(PE)의 조합을 나타내는 점이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는 $a+b+e$ 의 면적이 되고 생산자잉여는 $c+d+f$ 의 면적이 된다. 사회적 총 잉여(Total Surplus)는 두 잉여의 합인 $a+b+c+d+e+f$ 가 될 것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만나 동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면 소위 수요자와 공급자 간 시장의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상인의 유통이익은 없거나 실제 있더라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간 시장의 격리가 존재한다면 공급처로부터 수요처로의 상품의 이동을 위해 상인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인을 통한 상품의 이동 가능수량이 한정되어 있거나 상인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상품의 가격 및 수량은 균형가격 PE와 균형량 QE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괴리는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상품의 수량과 가격 그리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상인의 유통이익은 어떻게 변화되고 측정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 그림을 예로 들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격리가 존재하고 상인들에 의한 상품의 이동 가능 수량이 Q^* 로 한정될 경우 수요자는 균형가격인 PE보다 높은 수준인 PD의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는 반대로 균형가격인 PE보다 낮은 수준인 PS의 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PD-PS)가 상인의 상품 1단위당 유통이익이 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a와 d의 면적이 되고 이는 기존의 수준인 $a+b+e$ 및 $c+d+f$ 에 비해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인의 총 유통이익(지대)은 $b+c$ 가 된다. 결국 시장의 격리 및 이동 가능한 상품 수량의 제한 등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감소되는 반면 상인의 총 유통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 총 잉여는 기존 $a+b+c+d+e+f$ 에서 $a+b+c+d$ 로 감소하여 $e+f$ 만큼의 소위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16~19세기 유럽 동남아시아 간 교역의 대표적 상품이었던 향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생산지와 수요지가 격리되어 있고 상인에 의한 향료의 이동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모델을 통해 그 경제적 후생 및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수요와 공급모델을 활용하여 위에서 구분한 각 시기별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에 있어 소비자, 생산자, 상인의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료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 도출을 통해 유럽에서 사치재의 대표적 상품이었던 향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연 그 사치재적 성격을 상실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우리가 도출해야 할 항목은 <표2>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2> 향료시장의 특성 및 경제적 후생 측정을 위한 변수

함수 및 변수	방정식 및 기호	17 (1500~1650)	27 (1650~1780)	37 (1780~1890)
수요곡선	$P = \alpha Q + \beta$	$P_1 = \alpha_1 Q_1 + \beta_1$	$P_2 = \alpha_2 Q_2 + \beta_2$	$P_3 = \alpha_3 Q_3 + \beta_3$
공급곡선	$P = \gamma Q + \psi$	$P_1 = \gamma_1 Q_1 + \psi_1$	$P_2 = \gamma_2 Q_2 + \psi_2$	$P_3 = \gamma_3 Q_3 + \psi_3$
수요지(유럽) 가격	P^D	P_1^D	P_2^D	P_3^D
공급지(동남아) 가격	P^S	P_1^S	P_2^S	P_3^S
유럽 상인 공급량	Q^*	Q_1^*	Q_2^*	Q_3^*
향료 1단위당 유통이익(m)	$P^D - P^S$	$P_1^D - P_1^S$	$P_2^D - P_2^S$	$P_3^D - P_3^S$
소비자잉여(CS)	a	a_1	a_2	a_3
생산자잉여(PS)	d	d_1	d_2	d_3
총 유통이익(TM)	b+c	$(b+c)_1$	$(b+c)_2$	$(b+c)_3$
총 잉여(TS)	a+b+c+d	$(a+b+c+d)_1$	$(a+b+c+d)_2$	$(a+b+c+d)_3$
사중손실(DL)	e+f	$(e+f)_1$	$(e+f)_2$	$(e+f)_3$
수요의 가격탄력성	ε^D	ε_1^D	ε_2^D	ε_3^D
공급의 가격탄력성	ε^S	ε_1^S	ε_2^S	ε_3^S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위의 경제적 변수 및 지표의 측정을 위해 아래와 같

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1. 향료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하고 많은 경제주체를 향료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유럽 향료 소비자, 향료의 공급자로서의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유럽 상인의 3대 경제주체로 단순화한다.
2.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향료의 소비지, 생산지 등을 일원화하여 가상의 특정한 하나의 소비지, 생산지가 존재하며 향료의 거래는 동 가상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3. 향료의 소비지와 생산지는 격리되어 있어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며 유럽 향료 상인의 중개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4. 향료무역의 시기별 구분을 위해 위에서 2장에서 설정한 각 시기에 있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동일하며 수량을 독립변수,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차방정식의 형태를 가진다.²⁰⁾
5.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은 유럽 향료 소비자는 소비자잉여로,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는 생산자잉여로, 유럽 상인은 총 유통이익으로 측정할 수 있다.
6. 유럽 상인은 유통이익은 순수하게 생산지에서의 향료 단위당 매입가격과 수요지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의 차이로 측정한다.²¹⁾

20) 일반적으로 수요 및 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가격을 독립변수, 수량을 종속변수로 간주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향료무역의 시기 향료의 가격이 공급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량을 독립변수, 가격을 종속변수로 간주한다.

21) 여기서의 유통이익은 유럽에서의 판매가격과 동남아 산지에서의 구입가격의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다.

IV. 자료 및 실증분석

1. 자료

위의 경제적 변수 및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시기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일차)방정식 형태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 및 공급곡선을 도출하면 <그림1>에서와 같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 유통 이익 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후생지표 등을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표출되는 시장가격 및 수량의 조합들을 일차자료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격, 수량 조합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가격 및 균형량의 집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합들만 가지고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분리하여 도출하는 데에는 통계적 추정에 한계가 있다.²²⁾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향료시장과 같이 수요지와 공급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정 시기동안 수요와 공급곡선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수요지와 공급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격과 수량 자료를 통해 각각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 <표3>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3> 향료의 수요 및 공급곡선 도출을 위한 자료

	가격	수량
수요곡선	유럽 판매가격	유럽 판매량
공급곡선	동남아시아 판매가격	동남아시아 판매량

22) 이는 식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과 수량의 조합들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교차점을 표시할 따름이기 때문에 이 조합들의 정보만으로는 수요 및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변화, 기호의 변화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위의 자료들은 향료무역 관련 사료 등 1차 문헌과 기존연구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1차 사료에 대한 번역의 어려움, 사료 및 기존연구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상이한 가격, 수량 단위 등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통일되고 일관된 가격 및 수량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유의한 통계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분석을 위해 필요한 향료의 가격 및 수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리드(Reid) 등이 공저한 *Southeast Asian Exports since the 14th Century*(1998)에 수록되어 있는 정향(clove)과 후추(black pepper)의 가격 및 교역량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²³⁾ 동 저서에서는 향료무역이 이루어진 16세기 이후 전(全) 시기에 대한 완전한 시계열은 아니지만 향료무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료 및 문헌들에 나오는 정향 및 후추의 유럽 판매가격, 수량 및 동남아시아 매입가격 및 교역량 등의 자료를 10년 단위로 환산,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도량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향료가격 및 수량에 대한 자료를 가격인 경우 미국 달러화(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인 기준년도를 1940년으로 설정)로,²⁴⁾ 수량인 경우 1톤(ton) 단위로 통일하여 상이한 가격 및 수량 단위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표4>에서와 같이 동 저서에서 보고되고 있는 정향과 후추의 가격 및 교역량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수요 및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²⁵⁾ 그리고 도출된 수요 및 공급 곡선의 분석을 통

23) 후추를 향료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향과의 비교 및 유럽 동남아시아 간 대표적 교역 상품 중 하나였던 후추도 향료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24) 1940년 이전 시기는 금, 은 분위제도의 시기로 발권은행의 대규모 화폐발행을 통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통화 가치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실질 가격으로의 환산 문제는 경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보다 자세한 시계열 관련 자료는 정향의 경우 <참고1>의 <표13>과 <그림12>, <그림13>, 후추의 경우 <참고2>의 <표14>와 <그림14>, <그림15>를 참조할 것.

해 향료무역의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얻어진 실증분석 결과를 가지고 위에서 설정한 16~19세기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²⁶⁾

〈표4〉 정향 및 후추의 가격 및 수량 자료

		가격 (US\$, 1940년 기준, 평균)	수량 (톤, ton, 누적량)	시계열
수요 곡선	정향	유럽 판매가격	유럽 판매량	1500~1890년 기간 10년 단위
	후추	유럽 판매가격	유럽 판매량	1500~1890년 기간 10년 단위
공급 곡선	정향	동남아시아 판매가격	동남아시아 판매량	1500~1890년 기간 10년 단위
	후추	동남아시아 판매가격	동남아시아 판매량	1500~1890년 기간 10년 단위

2. 실증 분석(정향)

우선 위의 〈표4〉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시기별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표5〉은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시기별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일차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표6〉은 각 시기 정향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2〉~〈그림4〉는 각 시기별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5〉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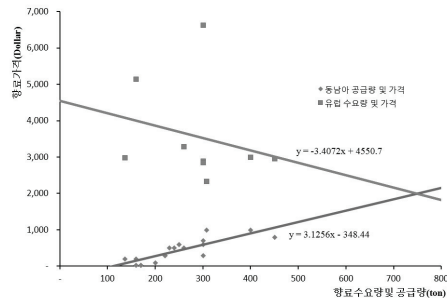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곡선 $P = aQ + \beta$	$P_1 = -3.41Q_1 + 4550.7$	$P_2 = -4.28Q_1 + 4006.4$	$P_3 = -11.26Q_1 + 2731.4$
공급곡선 $P = Q + \psi$	$P_1 = 3.13Q_1 - 348.4$	$P_2 = 206$	$P_3 = 323$

26) 정향과 후추의 시계열 자료를 합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계량분석 결과가 대체로 유의하지 않고 그 후생경제적 분석의 의미도 개별 상품에 비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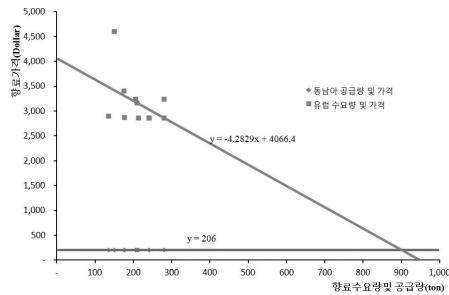
〈표6〉 정향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의 가격탄력성 ^D	4.2	3.5	0.8
공급의 가격탄력성 ^S	0.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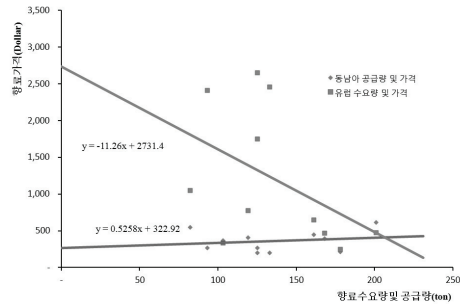
〈그림2〉 제 1기(1500-1650년)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



〈그림3〉 제 2기(1650-1780년) 정향의 수요 및 공급곡선



〈그림4〉 제 3기(1780-1890년) 정향의 수요 및 공급곡선



먼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향의 수요곡선은 3기에 걸쳐 모두 수요의 법칙과 일치하는 우하향(기울기 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곡선의 경우 1기에는 공급의 법칙과 일치하는 우상향(기울기 양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기와 3기에는 일정한 수준의 가격에 공급이 묶여 있는(수평선, 기울기 0) 모습을 보인다. 이는 2기 및 3기의 경우 정향의 가격과 공급이 유럽 상인(네덜란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5>에서 보듯이 정향의 수요곡선의 경우 계수(기울기)가 -3.41, -4.28, -11.26은 각각 1%($t=-7.039$), 10%($t=-1.624$), 5%($t=-2.03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²⁷⁾ 또한 기울기의 절대값(3.41, 4.28, 11.26)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점차 비탄력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향료가 점차 사치재의 성격에서 일반재의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급곡선의 경우 1기는 계수가 3.13($t=6.196$)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2기 및 3기의 경우 공급곡선은 $P2=206$ 및 $P3=323$ 으로 공급이 일정한 가격에 묶여 있다. 결국 \$206, \$323는 생산자잉여가 보장되지 않는 향료생산을 위한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6>은 각 시기의 가격 및 수요, 공급량의 조합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1기 4.2, 2기 3.5, 3기 0.8로 계속 작아짐(비탄력적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3기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로 1보다 작아 사치재의 성격에서 일반재의 성격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공급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1기 0.6으로 비탄력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농산물의 하나인 향료의 생산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27) 일반적으로 추정치가 유의수준 10%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본 논문의 경우 분석을 위한 시계열이 충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은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 그래프를 <그림1>에 대입하여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 및 관련 지표들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7>과 같다.

아래 표에서 수요자인 유럽의 정향 가격을 보면 제 1기 \$3,561, 2기 \$3,170, 3기 \$1,208로 1기와 2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는 데 비해 3기에는 그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기와 2기의 경우 정향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었고 특히 2기에는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상인에 의한 공급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은 독점적 가격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3기에는 정

<표7> 정향시장의 가격, 수량 지표 및 경제적 후생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처(유럽) 가격 P^D	\$3,561	\$3,170	\$1,208
공급처(동남아) 가격 P^S	\$428	\$206	\$323
유럽 상인 공급량 Q^*	249톤	209톤	135톤
항료 1단위당 유통이익 $M=P^D-P^S$	\$3,133	\$2,967	\$886
소비자잉여(CS) a	\$123,218(12.2)	\$93,674(13.1)	\$102,830(40.1)
생산자잉여(PS) d	\$106,572(10.6)	0(0.0)	0(0.0)
총 유통이익(TM) b+c	\$780,117(77.2)	\$619,476(86.9)	\$153,360(59.9)
총 잉여(TS) a+b+c+d	\$1,009,907(100.0)	\$713,150(100.0)	\$256,190(100.0)
사중손실(DL) e+f	\$805,227(79.7)	\$1,027,710(144.1)	\$35,076(13.7)

주 1) () 안의 수치는 총 잉여 대비 비율(%)

2) 유럽 상인 공급량(Q^*)은 각 기간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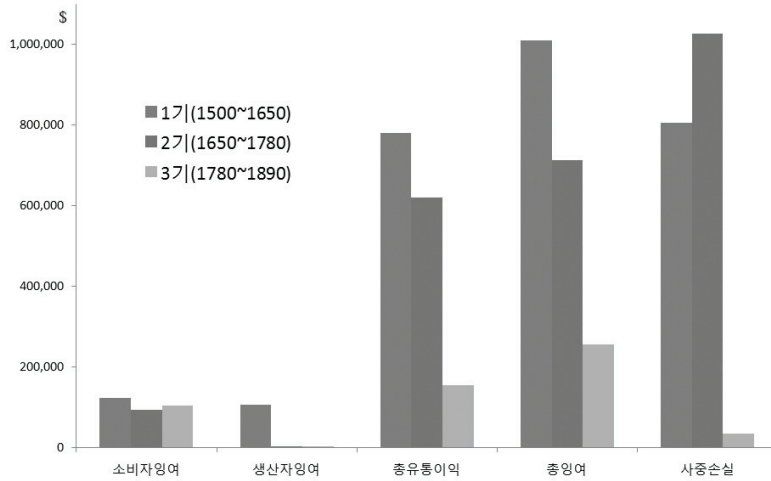
향 생산지의 확산 및 네덜란드 상인의 독점적 지위 약화에 따른 경쟁적 가격으로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급처인 동남아시아 현지의 정향 가격은 1기 \$428에서 2기에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6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3기 \$323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향 가격이 경쟁적으로 결정되던 1기에 비해 2기, 3기에는 유럽 상인의 수요 독점에 의한 가격 왜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3기에 비해 2기가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 상인에 의한 정향 공급량(교역량)은 1기 249톤, 2기 209톤으로 네덜란드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던 2기보다 오히려 경쟁적 시장의 성격이 강했던 1기에 공급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에는 향료 대체재의 보급과 생산지의 확산으로 교역량이 135톤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상인의 정향 1톤 당 유통이익은 1기 \$3,133, 2기 \$2,967로 큰 차이가 없다가 3기 \$88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유럽 상인의 유통이익이 2기까지는 그 독점력으로 인해 담보될 수 있었던데 반해 3기는 더 이상 이전 수준의 유통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위에서 살펴본 여러 경제적 변수들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향료무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위에서 설정한 경제학적 모델의 실증적 분석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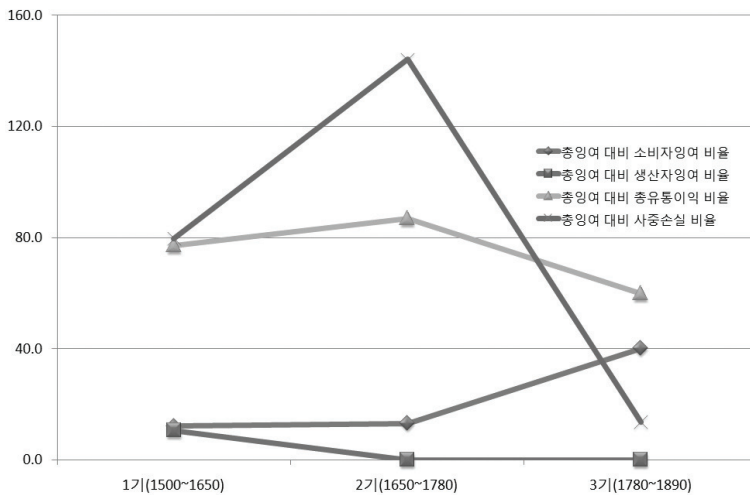
또한 <그림5>과 <그림6>은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의 시기별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를 각각 절대규모 및 상대적 비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5>은 각 경제주체의 절대적 후생수준 및 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잉여의 경우 1기 \$123,218, 2기 \$93,674, 3기 \$102,830로 정향시장에서 경쟁적 성격이 강한 1기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독점적 성격이 강한 2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3기가 되면 소비자잉여가 2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잉여의 경우 1기 \$106,572로 소비자잉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정향 생산

〈그림5〉 정향시장에서의 경제적 후생(절대규모) 변화



〈그림6〉 정향시장에서의 경제적 후생(상대적 비중) 변화



자의 경제적 후생이 담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기 및 3기의 경우 정향 가격이 유럽 상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생산자잉여는 모두 유럽 상인의 유통이익으로 흡수되고 생산자들에게는 생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 가격 수준이 강제되게 된다. 총 유통이익은 1기 \$780,117로 가장 높고 2기에 \$619,476로 유지되다가 3기에는 \$153,360으로 큰 폭 감소하게 된다. 총 잉여는 1기에 \$1,009,907로 가장 높고 2기 \$713,150으로 감소하다가 3기에는 \$256,190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사중 손실은 2기에서 \$1,027,710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1기 \$805,227, 3기 \$35,076의 순이다.

후생수준을 상대화시킨 <그림6>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설정된 가설의 타당성이 확인된다. 우선 총 잉여 대비 소비자잉여 비율은 1기 12.2%에서 2기 13.1%로 큰 변화가 없다가 3기 40.1%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3기에 들어서서 정향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잉여 비중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잉여 대비 생산자잉여 비율은 1기 10.6%에서 2기, 3기 모두 0%로 생산자잉여는 사라지게 된다. 총 잉여 대비 총 유통이익 비율은 1기 77.2%, 2기 86.9%, 3기 59.9%로 독점력이 가장 컸던 2기에 그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왜곡으로 인한 후생의 손실을 나타내는 사중손실의 경우에도 총 잉여 대비 비율이 2기에 144.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위에서 살펴본 경제적 후생수준 및 변화는 앞에서 설정한 가설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은 정향시장의 경우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의 부합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절대규모면에서 본다면 유럽 정향 소비자 및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이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 비율을 통한 분석의 경우에는 유럽 정향 소비자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 있어 가설이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표8〉 정향시장에 대한 가설 및 그 부합 여부

시기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 및 부합여부											
	유럽 정향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동남아시아 정향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			경제적 왜곡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제 1기 (1500-1650)	증가	N	Y	감소	Y	Y	증가	N	Y	증가	Y	Y
제 2기 (1650-1780)	최대	N	N	최저	Y	Y	최대	N	Y	최대	Y	Y
제 3기 (1780-1890)	감소	N	N	최저	Y	Y	감소	Y	Y	감소	Y	Y

주) 가설의 감소 및 증가는 2기를 기준으로 1기와 3기의 변화를 나타냄. 예를 들어 1기에서 증가는 후생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1기에 비해 2기가 큼을 의미함. 최저 및 최대는 동 시기 후생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함. 또한 Y는 가설의 부합을 N은 부합하지 않음을 표시함. 음영표시는 가설과 부합함을 의미.

3. 실증 분석(후추)

후추(black pepper)의 경우를 보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4〉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시기별 후추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²⁸⁾ 먼저 〈표9〉은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시기별 후추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일차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표10〉은 각 시기 후추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7〉~〈그림9〉는 각 시기별 정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9〉 후추시장의 수요 및 공급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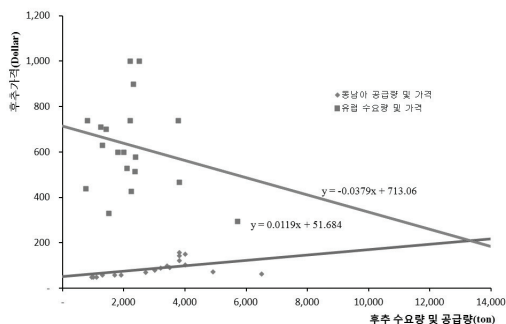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곡선 $P = \alpha Q + \beta$	$P_1 = -0.04Q_1 + 713.1$	$P_2 = 398$	$P_3 = -0.04Q_3 + 761.4$
공급곡선 $P = \gamma Q + \psi$	$P_1 = 0.01Q_1 + 51.7$	$P_2 = 83$	$P_3 = 0.004Q_3 + 55.7$

28) 후추 생산은 정향과는 달리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동남아시아 후추 공급량이 유럽의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향에 비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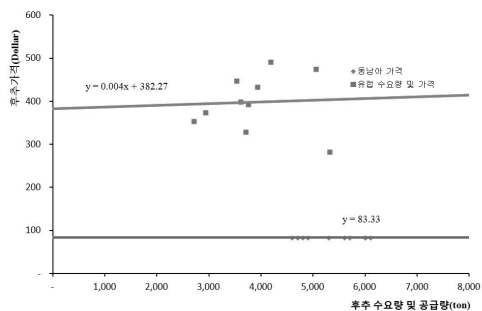
〈표10〉 후추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의 가격탄력성 ^D	7.1	-	1.7
공급의 가격탄력성 ^S	2.9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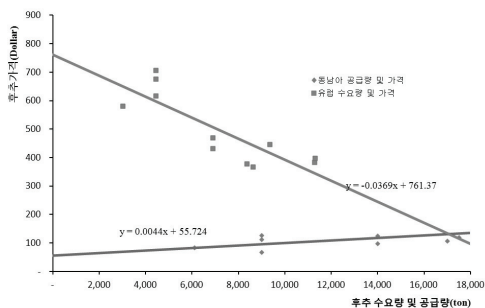
〈그림7〉 제 1기(1500-1650년) 후추의 수요 및 공급곡선



〈그림8〉 제 2기(1650-1780년) 후추의 수요 및 공급곡선



〈그림9〉 제 3기(1780-1890년) 후추의 수요 및 공급곡선



먼저 후추의 수요곡선의 경우 1기 및 3기에는 예상대로 음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계수 $0.04(t=-2.789)$, $-0.04(t=-2.200)$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기울기의 절대값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후추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곡선의 경우 제 1기 및 3기의 경우 예상대로 양의 기울기로 보이고 있고 계수인 0.01과 0.004는 모두 10%(각각 $t=1.747$, $t=1.684$)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2기의 경우는 공급곡선이 $P2=83$ 으로 공급이 일정한 가격(상수)인 \$83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후추의 경우에도 정향의 경우와 같이 1기 이후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 후추시장에 대한 독점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공급이 가격에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2기의 향료의 공급가격인 \$83는 생산자잉여가 보장되지 않는 후추생산을 위한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0〉은 각 시기의 가격 및 수요량, 공급량의 조합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1기 7.1, 3기 1.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비탄력적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3기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점차 1에 가까워지고 있어 후추가 앞의 정향의 사례와 같이 사치재의 성격에서 일반재의 성격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1기 2.9, 3기 2.7로 이는 정향보다는 비교적 신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후추시장에서도 수요 및 공급 곡선이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향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위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을 〈그림1〉에 대입하여 후추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 및 관련 지표들을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11〉과 같다.

〈표11〉 후추시장의 가격, 수량 지표 및 경제적 후생

변수	1기 (1500~1650)	2기 (1650~1780)	3기 (1780~1890)
수요처(유럽)가격 P^D	\$645	\$389	\$496
공급처(동남아)가격 P^S	\$88	\$83	\$87
유럽 상인 공급량 Q^*	3,031톤	3,873톤	7,178톤
향료 1단위당 유통이익 $M=P^D-P^S$	\$557	\$315	\$409
소비자잉여(CS) a	\$77,248(4.2)	-	\$951,085(23.8)
생산자잉여(PS) d	\$54,558(3.0)	-	\$111,259(2.8)
총유통이익(TM) b+c	\$1,688,267(92.8)	\$1,219,995(100.0)	\$2,935,802(73.4)
총잉여(TS) a+b+c+d	\$1,820,073(100.0)	\$1,219,995(100.0)	\$3,998,146(100.0)
사중손실(DL) e+f	\$2,551,781(140.2)	-	\$1,656,097(41.4)

주 1) () 안의 수치는 총 잉여 대비 비율(%)

2) 유럽 상인 공급량(Q^*)은 각 기간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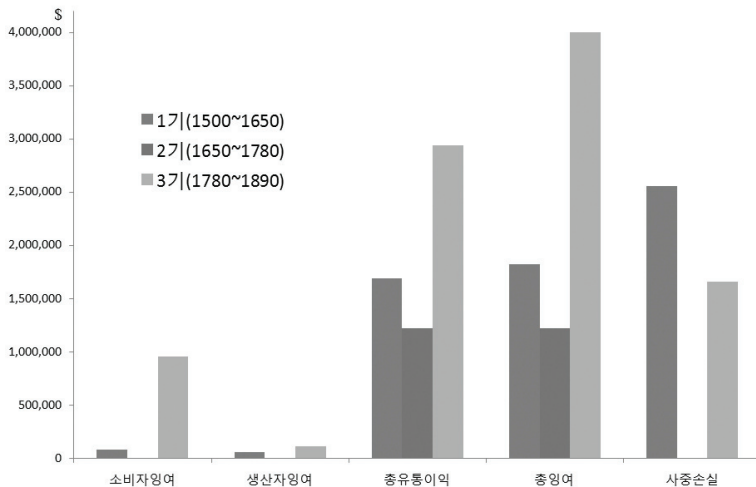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수요지인 유럽의 후추가격을 보면 제 1기 \$645, 2기 \$389, 3기 \$496로 앞에서 분석한 정향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후추의 경우에는 1기의 가격이 가장 높은데 비해 2기와 3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그 하락폭도 정향에 비해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후추에 대한 독점력이 정향에 비해 높지 않았고 후추의 생산이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추시장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경쟁적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향과 같이 극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지인 동남아시아 현지의 후추가격은 제 1기 \$88에서 2기 \$83, 3기 \$87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2기의 가격이 1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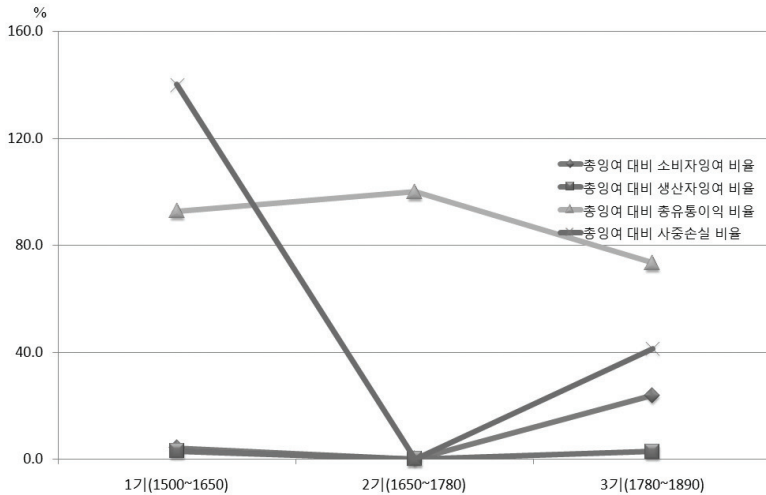
지만 하락폭은 미미하다. 이는 마찬가지로 앞의 정향의 동남아시아 현지 가격의 변화 모습과 크게 다르다. 이는 정향에 비해 후추의 경우 수요 부문에 있어서 유럽 상인에 의한 독점력이 정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상인에 의한 향료의 공급량(무역량)은 제 1기 3,031톤, 2기 3,873톤, 3기에는 7,178톤으로 1기 및 2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3기에는 후추 생산지의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유럽 상인의 후추 1톤 당 유통이익은 1기 \$557, 2기 \$315, 3기 \$409로 정향의 유통이익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향의 경우와는 달리 후추시장에 대한 유럽 상인의 독점력이 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경제적 지표들을 볼 때 후추의 경우 정향에 비해 독점적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그림10>과 <그림11>은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추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시기별 후생 변화를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비율 측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0> 후추시장에서의 경제적 후생(절대규모) 변화



〈그림11〉 후추시장에서의 경제적 후생(상대적 비중) 변화



각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 및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잉여의 경우 1기 \$77,248, 3기 \$951,085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2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특정 가격수준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잉여의 측정이 불가). 이는 후추시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생산자잉여의 경우에는 1기 \$54,558, 3기 \$111,259로 소비자잉여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절대적 차원에서는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도 증가되고 있음을 보인다. 하지만 2기의 경우 가격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생산자잉여는 모두 유럽 상인의 유통이익으로 흡수되고 생산자들에게는 생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유통이익은 1기 \$1,688,267, 2기 \$1,219,995로 감소하였다가 교역량의 급증에 따라 3기 \$2,935,802로 큰 폭 증가한다. 총 잉여의 경우에도 1기 \$1,820,073, 2기 \$1,219,995로 감소하다가 3기에는 \$2,935,802로 큰 폭 증가한다. 사중손실은 1기 \$2,551,781, 3기 \$1,656,097로 감소한다. 위에서 살펴본 경제적 후생수준 및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후추시장에 대한 가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11>에서와 같이 후생수준에 대한 분석을 상대화시켜 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잉여 대비 총 유통이익의 비중은 1기 92.8%, 3기 73.4%로 감소하는 반면 총 잉여 대비 소비자잉여의 비율은 1기 4.2%에서 3기 23.8%로 크게 증가한다. 또한 경제적 왜곡으로 인한 후생의 손실을 나타내는 사중손실의 경우에도 총 잉여 대비 비율이 1기에 140.2%에서 3기 41.4%로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12>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추시장에 대한 가설 및 그 부합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절대규모면에서 본다면 동남아시아 후추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이 3기에서 부합하지 않고 유럽 소비자 및 상인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이 전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정향의 경우와 비슷하게 상대적 비율을 통한 분석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후추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이 유럽의 후추 소비자 및 3기 후추 생산자의 경우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가설이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왜곡의 경우에는 2기의 수요 및 공급 곡선에서 보듯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12> 후추시장에 대한 가설 및 그 부합 여부

시기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가설 및 부합여부											
	유럽 후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동남아시아 후추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			유럽 상인의 경제적 후생			경제적 왜곡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가설	절대	상대
제 1기 (1500-1650)	증가	N	N	감소	Y	Y	증가	N	Y	증가	-	-
제 2기 (1650-1780)	최대	N	N	최저	Y	Y	최대	N	Y	최대	-	-
제 3기 (1780-1890)	감소	N	N	최저	N	N	감소	N	Y	감소	-	-

주) 가설의 감소 및 증가는 2기를 기준으로 1기와 3기의 변화를 나타냄. 예를 들어 1기에서 증가는 후생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1기에 비해 2기가 큼을 의미함. 최저 및 최대는 동 시기 후생수준 및 경제적 왜곡의 정도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함. 또한 Y는 가설의 부합을 N은 부합하지 않음을 -는 추정불능의 경우를 표시함. 음영표시는 가설과 부합함을 의미.

4. 향료무역의 경제학적 의미

위의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요약해 보면 향료(정향과 후추)무역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후생 변화에 대한 가설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추보다는 정향에서 보다 더 잘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향에 대한 독점력이 후추보다 강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의 왜곡 수준도 정향시장에서 보다 높았음을 반증한다.

또한 상대적 비율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 및 유럽 상인의 경우에 있어 거의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16~19세기라는 특정 시기, 향료시장이라는 특정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독점 등의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의 보편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시기 향료무역의 경제적 후생의 배분에 있어서도 한 경제주체의 후생의 증가를 위해서는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의 감소라는 비용(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파레토적 원리(Pareto's law)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경우 적어도 대항해 시대(제 1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향료시장의 확장과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포지티브섬(positive sum) 방식으로의 경제적 후생의 증대 등이 가능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도 유럽 소비자 및 유럽 상인들과 대등한 시장참여자로서 경제적 후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유럽 상인에 의한 독점적 수요 및 공급이라는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었고 향료시장은 그렇지 않았을 때를 가졌했을 경우에 비해 상당부분 정체 및 축소되었다. 또한 경제적 후생의 증대도 네거티브섬(negative sum) 또는 제로섬(zero sum)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가 누리던 경제적 후생은 점차적으로 또는 급속하게 유럽 상인 및 유럽 향료 소비자에게 이전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상인(네덜란드)이 향료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 부문에 대

한 독점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향료 생산지의 확산, 대체재 등장 등으로 인해 유럽에서 향료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유통이익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왜곡은 향료무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 이후 19세기 후반까지의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향료무역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 및 그 변화의 양상을 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한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총 유통이익 등의 후생변수의 측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향료무역의 주체를 향료의 공급자인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 향료를 소비하는 유럽 향료 소비자, 그리고 이 두 주체를 연결하고 유통이익을 얻는 유럽 상인 등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누리는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총 유통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향료무역의 구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가설의 설정 및 그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향료무역 초기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와 유럽 상인 간의 교역은 경쟁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유럽 상인(네덜란드)의 유통망 장악과 수요 독점 더 나아가 공급에 대한 통제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독점적 시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향료 생산자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 소비자들의 경우 향료공급의 전반적 증가 등으로 인해 일정부분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상인의 경우 향료 시장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의 지속을 통해 총 유통이익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세기 이후 향료무역 자체가 의미를 잃어감에 따라 유통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결국 향료무역 초기에는 경제주체 간에 대등한 상업 및 생산 활동을 통

한 경제적 잉여의 배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상업적 활동 및 경제활동의 잉여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이전되어 갔으며 이러한 향료무역의 불균등 교역관계는 18세기 중반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19세기 후반 서구의 동남아시아 식민지 경영을 거쳐 20세기 중엽 동남아시아 식민지 체제의 붕괴를 통해 비로소 4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균형적 잉여의 배분은 해소되게 되었다.

우리는 위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간 향료무역은 불균등 무역의 성격이 강하였고 향료 제도에 대한 네덜란드의 본격적 강점이 시작된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향료 시장의 구도가 수요 독점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향료 생산자들은 향료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향료무역에 있어서의 각 경제주체들의 후생 변화를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보다 객관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각 변수의 시계열 자료 부족 및 탈락 등 통계적 처리를 위한 자료의 문제점, 시계열을 입수한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시계열이 연도별이 아닌 10년 단위로 자료를 취합한 데서 오는 정확한 후생변화 추적의 난점, 물가변동을 고려한 미국 달러 환산액 조정의 부재, 각 경제주체들을 단순화시켜 향료시장에 참여했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후생의 변화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본 논문 주제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향료무역의 전반적인 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 인도 및 아랍의 향료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체재의 보급, 유통기술의 발달 등 향료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투 고 일 : 2012년06월16일]

[심사완료일 : 2012년08월08일]

[게재확정일 : 2012년08월08일]

〈참고문헌〉

- 강성호. 2006.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나?” 『西洋史論』90: 43-73.
- 고원. 2010. “유럽 자본주의와 인도양 세계.” 『西洋史論』107: 235-253.
- 김근수. 2001.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기원.” 『노동사회』58: 99-108.
- 김동엽. 2011.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21(2): 1-41.
- 길인성. 1995. “근대 전기의 향료무역과 동남아 경제.” 동남아지역연구회(편), 『동남아의 정
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pp.3-39.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신윤길. 1998. “17세기 양 동인도회사의 향료, 후추 쟁탈무역연구.” 『서양사학연구』1: 239-
255.
- 이용일. 2008. “유럽중심주의와 근대화: 미국적 세계지배비전으로서 근대화이론의 형성과
독일사적 전유.” 『역사와 경계』69: 421-453.
-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주).
- Bentley, Jerry H. 1996. “Cross-cultural Interaction and Periodization in World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 749-770.
- Bulbeck, David (ed.). 1998. “Southeast Asian Exports since the 14th Century: Cloves,
Pepper, Coffee, and Suga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KITLV Press.
- Frank, Andre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lton, Giles. 2000. *Nathaniel’s Nutmeg: or the True and Incredible Adventures of the
Spice Trader Who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Penguin Books.
- Hall, Kenneth R. 1999. “Economic History of Early Southeast Asia.” In Nicholas Tarling
(ed.),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from early times to c.1800*, Vol. 1,
(paperback edition), pp. 183-27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Kenneth R. 2004. “Local and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rs in the Straits of
Melaka Region: 600-1500.”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14(2): 213–260.

Heidhues, Mary S. 2000. *Southeast Asia: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Kathirithamby-Wells, Jeyamalar. 1993. "Restraints on the Development of Merchant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before c. 1800." In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Belief*, pp. 123–148.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Kim, Dong-Yeob. 2012. "The Impact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VOC) on the Evolution of Southeast Asian Economy", *East Asian Studies*, 31(1): 367–400.

Lieberman, Victor. 1993. "Local Integration and Eurasian Analogies: Structuring Southeast Asian History, c. 1350–c. 1830." *Modern Asian Studies*, 27(3): 475–572.

Lieberman, Victor. 1995. "Review: An Age of Commerce in Southeast Asia? Problems of Regional Coherenc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4(3): 796–807.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2, "After Columbus: Explaining Europe's Overseas Trade Boom, 1500–180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2): 417–456.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9. "Did Vasco da Gama Matter to European Markets?" *Economic History Review*, 62(3): 655–684.

Polanyi, Karl P.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d, Anthony. 1990. "An 'Age of Commerce' in Southeast Asian History." *Modern Asian Studies*, 24(1): 1–30.

Reid, Anthony. 1992. "Economic and Social Change, c. 1400–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ume Two from c. 1500 to c.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d, Anthony. 1993a.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Reid, Anthony (ed.). 1993b.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San Diego, Calif.: Academic Press.

〈참고 1〉

〈표13〉 정향 가격, 수량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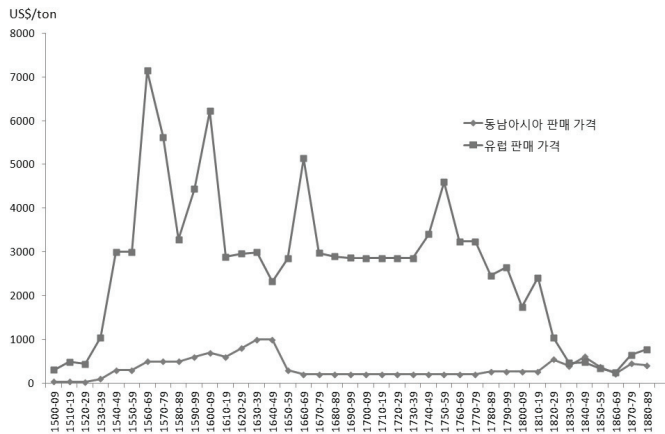
(US\$, ton)

기간	동남아시아 가격	유럽 가격	공급량 및 수요량
1500-09	35	311	170
1510-19	35	490	160
1520-29	30	444	170
1530-39	100	1,050	200
1540-49	300	3,000	220
1550-59	300	3,000	220
1560-69	500	7,143	230
1570-79	500	5,625	240
1580-89	500	3,290	260
1590-99	600	4,440	250
1600-09	700	6,220	300
1610-19	600	2,890	300
1620-29	800	2,960	450
1630-39	1,000	2,990	400
1640-49	1,000	2,330	308
1650-59	300	2,850	300
1660-69	206	5,140	160
1670-79	206	2,980	136
1680-89	206	2,900	134
1690-99	206	2,870	176
1700-09	206	2,860	213
1710-19	206	2,860	280
1720-29	206	2,860	240
1730-39	206	2,860	240
1740-49	206	3,410	175
1750-59	206	4,600	150
1760-69	206	3,240	280
1770-79	206	3,240	205
1780-89	271	2,460	133
1790-99	271	2,650	100
1800-09	271	1,750	95
1810-19	271	2,410	90
1820-29	549	1,050	82
1830-39	398	470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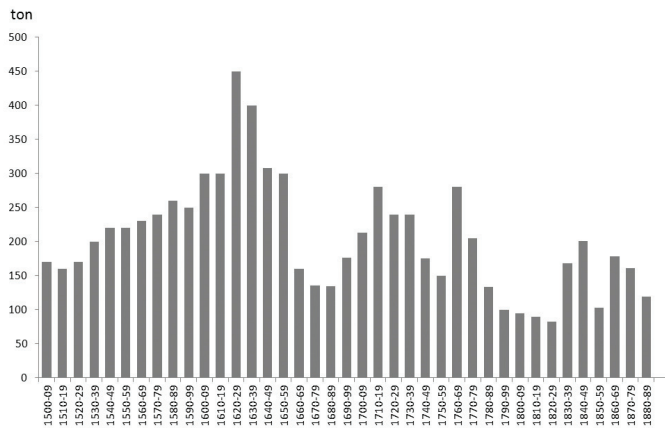
1840-49	614	480	201
1850-59	370	340	103
1860-69	220	250	178
1870-79	450	650	161
1880-89	410	780	119

주) 정향의 유럽의 수요량은 자료의 부재로 동남아시아 공급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출처)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2

〈그림12〉 정향 가격 추이



〈그림13〉 정향 공급량, 수요량 추이



주) 정향의 유럽 수요량은 자료의 부재로 동남아시아 공급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막대 그래프 도출.

〈참고2〉

〈표14〉 후추 가격, 수량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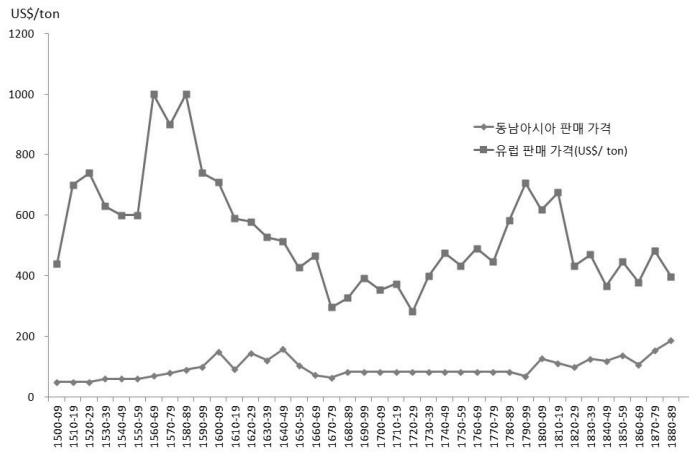
(US\$, ton)

기간	동남아시아 가격	유럽 가격	동남아시아 공급량	유럽 수요량
1500-09	49	440	950	50
1510-19	50	700	1,000	100
1520-29	50	740	1,100	200
1530-39	60	630	1,300	300
1540-49	60	600	1,700	600
1550-59	60	600	1,900	700
1560-69	70	1,000	2,700	1,300
1570-79	80	900	3,000	1,300
1580-89	90	1,000	3,200	1,400
1590-99	100	740	3,400	1,400
1600-09	150	710	4,000	2,000
1610-19	91	590	3,500	1,500
1620-29	145	579	3,800	1,500
1630-39	122	528	3,800	1,400
1640-49	158	514	3,800	2,100
1650-59	104	428	4,000	2,200
1660-69	73	467	4,900	2,900
1670-79	64	296	6,500	4,500
1680-89	83	328	4,700	2,600
1690-99	83	393	5,300	2,600
1700-09	83	353	4,800	1,800
1710-19	83	374	4,600	1,900
1720-29	83	282	6,000	3,600
1730-39	83	399	5,700	3,000
1740-49	83	475	6,000	3,600
1750-59	83	433	4,900	2,300
1760-69	83	491	5,600	2,700
1770-79	83	447	6,100	2,400
1780-89	83	582	6,100	2,100
1790-99	69	706	9,000	3,098
1800-09	128	618	9,000	3,098
1810-19	112	676	9,000	3,098
1820-29	99	432	14,000	4,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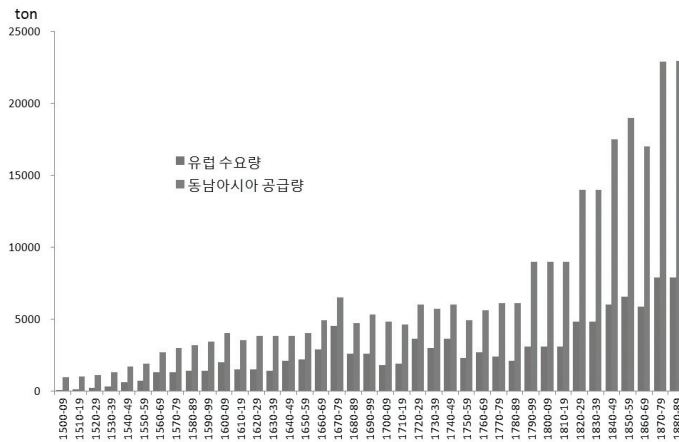
1830~39	126	471	14,000	4,820
1840~49	119	367	17,500	6,025
1850~59	138	447	19,000	6,541
1860~69	107	379	17,000	5,852
1870~79	154	484	22,892	7,881
1880~89	187	398	22,957	7,903

출처)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2

〈그림14〉 후추 가격 추이



〈그림15〉 후추 공급량, 수요량 추이



ABSTRACT

Change in Economic Welfare of Consumer, Producer, and European Merchant in Europe-Southeast Asia Spice Trade in 16~19C

RA, Hee-Ryang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measures and sees the economic welfare of the participants(European spice consumer, Southeast Asian spice producer, and European merchant) in spice market and trade and its change in the age of 16~19C. Also, we want to see whether our empirical results fit well with the historical ground which implies unfair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in this era. We expect this research could provide more objective and concrete evidence for the unfair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For this, we divide the era into three periods(first period on 1500~1650, second period on 1650~1780, third period on 1780~1890). It depends on economic distortion and monopolistic power of European merchant on the spice market. We suggest the hypothesis that Southeast Asian spice producer could gain the economic welfare(surplus) at least in the first period. However, as the monopolistic power of European(Dutch) merchant dominated spice market and trade, the economic welfare of producer was lost and transferred to Europe(consumer and merchant) namely, in second and third periods. We assume that the economic distortion and loss of producer's welfare was maximized at the second period. We propose economic model(demand-supply model) and perform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price and quantity data of clove and black pepper in the trade. Our empirical results relatively fit well with the suggested hypothesis. Thus, we can say that economic principle that economic

welfare should be harmed by economic distortion such as monopoly was even valid in the spice trade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16~19C. Finally, we believe that this paper contribute in a sense that it could provide the empirical and more concrete evidence which supports the unfair spic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in the era.

Key Words Spice Trade, Spice Producer, Spice Consumer, European Merchant, Economic Welfare, Economic Distortion